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 분석 및 지역청년문제 연구

박 춘 섭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사회경제팀장
jacobp73@cni.re.kr

송 두 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단장
dbsong@cni.re.kr

이 연구는 청양군 청년들의 실태와 정책수요 분석을 통해 청양군 청년문제를 해소하는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CONTENTS

1. 연구개요
2. 청양군 청년실태 분석
3.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4. 청양군 청년정책 방향 제언

요약

-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는 청양군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 ①삶에 대한 인식, ②문화와 여가, ③교통 및 주거, ④소득과 부채, ⑤청년정책의 영역 조사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냄
- ‘삶에 대한 인식’은 자녀교육과 물가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문화 및 체육, 의료 및 건강 등은 만족도가 낮았음
- ‘문화와 여가’는 주로 주말에 TV시청, 휴식 등을 취하며 실내에서 쉬지만, 관광, 문화예술관람 등 실외활동 욕구가 강하게 존재
- ‘교통 및 주거’는 주요 교통수단이 자가용이지만,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 또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성을 높게 나타냄
- ‘소득과 부채’는 응답자 청년 10명중 3명이 부채를 지고 있으며, 평균 4600만원. 이유는 주택마련 등 부동산 구매였음
-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살기 좋은 도시는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를 선택했음
- 위의 결과를 기초로 청양군 청년의 ‘사회·문화욕구’ 해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방향을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청양’으로 제시
- 추진전략으로 ①문화역량 개발, ② 공공교통 확충, ③ 청년의 목소리 발신채널 구축을 제안

01 연구개요

1. 서론

- 현재 청년세대의 고용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둘러싼 여건도 좋지 않음
 - 명목상 청년의 실업률은 9.9%(2017)로 전체 실업률(3.7%)의 2.7배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애로층(실업자+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으로 판단하면 22.7%로 큰폭 상승
 - 또한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7만명(17.11월기준), 청년 NEET는 18.8%(177만명)¹⁾에 육박
 - 이러한 청년고용의 해소하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청년세대(에코세대)의 인구 일시 증가, 노동시장의 격차심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여건이 좋지 않음
- 이는 비단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에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 가구유형별로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19.9%)로 가장 높으며, 청년층은 고용뿐만 아니라 건강, 문화, 주거 등에서 앞선 세대와 비교할 때 큰 곤란을 겪고 있음(보건복지부, 2018)
 - 계층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 즉 열심히 일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N포 세대'가 등장하는 등 청년들은 열패감에 휩싸여 있음
 - 그러므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식의 접근이 아닌 긴급한 지원대상으로 정책지원 필요
- 본 연구는 청양군 조사를 기초로, 정책·사례분석 후 청양군 청년정책 방향 제안
 - 청양군이 실시한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를 토대로, 청양군의 청년의 삶과 정책수요를 파악
 - 현재 중앙정부 정책현황 및 타 지자체 정책사례 검토 후,
 - 청양군 청년문제(정책)와 대응하는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제시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2016년), 장기 비구직니트(6개월이상) 현황

02

청양군 청년실태 분석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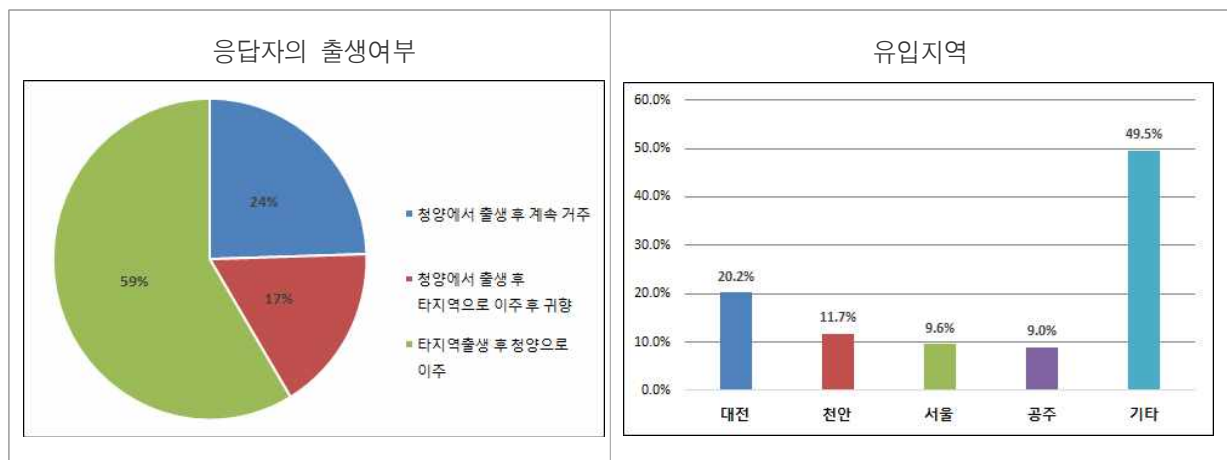
● 청양군은 청년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 실시

- 조사목적은 청양군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청양군 기획감사실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추진
- 청양군 청년 351명이 응답. 연령대는 만18~29세 68.2%, 만30세~39세 32.8%이며, 미혼이 78.1%, 직업은 학생이 34.2%, 회사원이 39.9%였음
- 조사내용은 청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①삶에 대한 인식, ②문화와 여가, ③교통 및 주거, ④소득과 부채, ⑤청년정책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 본 과제에서는 ‘청양군 청년종합실태조사’을 통해 청양군의 청년의 생활실태 및 니즈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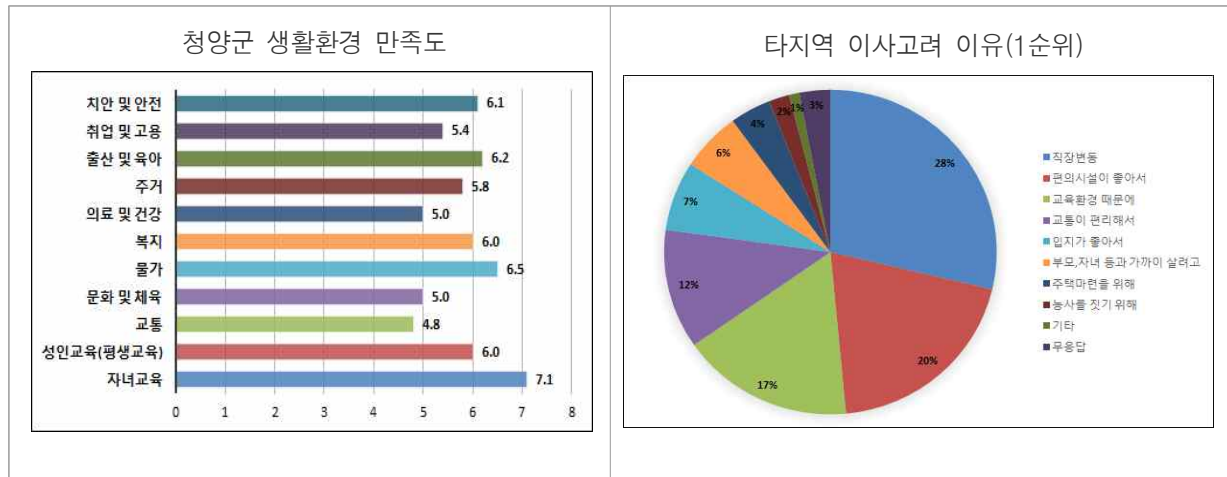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351	100.0%
성별	남성	176	50.1%
	여성	175	49.9%
만나이	만18~19세	84	23.9%
	만20~29세	152	43.3%
	만30~39세	115	32.8%
결혼여부	미혼	274	78.1%
	재혼	77	21.9%
직업	학생	120	34.2%
	회사원	140	39.9%
	자영업	15	4.3%
	농축산업	16	4.6%
	무직	11	3.1%
	공무원	28	8.0%
	기타	21	6.0%

2. 삶에 대한 인식

- 응답자는 청양 출신 청년 41%, 직장과 학업 등을 위해 살게 된 이주청년 59%로 구성
 - 청양 출생후 계속거주 24%, 타지역 이주후 귀향 17%, 타지역 출생후 이주 59%
 - 유입지역은 대전 20.2%, 천안 11.7%, 서울 9.6%, 공주 9.0% 순
 - 청년들이 청양군으로 오는 주요한 이유는 직장 또는 학업 때문이며(71.3%), 부모·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10.6%)



- 자녀교육과 물가수준은 만족하지만, 문화 및 의료시설은 부족하다고 생각
 - 청양군의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7.1/10점)가 높고, 물가(6.5), 출산 및 육아(6.2), 치안 및 안전(6.1)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문화 및 체육, 의료 및 건강(5.0), 취업 및 고용(5.4)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충남도 사회조사(2017)와 비교시, 자녀교육 만족도 높음은 교육환경(4.14) 불만족과 상반된 결과치임. 이는 청년층 자녀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청양군 유아·초등교육단계의 좋음으로 해석 가능. 그러나 면밀한 검토 필요
- 응답자의 40%는 직장과 편의시설, 교육환경의 이유로 대전, 세종, 서울로 이사를 고려
 - 1년 이내의 타 지역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가 40%로, 대전(16.8%), 세종(16.8%), 서울(13.9%), 공주(11.9%), 홍성(11.9%) 순이었음
 - 주요한 이유는 직장(학교)변동, 편의시설, 교육환경, 교통편리 등의 이유로 이사를 고려



- 사회참여, 소그룹모임 등을 통해 지역사회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청양군 지역사회의 폐쇄성(52.5%)이 관계형성을 힘들게 하는 요소임
 - 지역사회 관계는 사회참여와 문화생활(소그룹모임)을 통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 관계형성이 어려운 점은 ①지역의 폐쇄성(52.5%), ②사생활 노출(23.8%), ③세대 갈등(10.9%), ④가치관 차이(9.9%)이었음

구분		지역 사회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친구관계	사회적 참여도	학연지연	문화생활 (소그룹모임)	기타
전 체	101	23.8%	31.7%	12.9%	30.7%	1.0%

- 청양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 청양 이외 지역으로 이사 의향이 있는 자(101명 대상)

3. 문화와 여가

- 청양 청년들은 주말에 실내 활동(TV시청·휴식·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음
 - 주말 여가시간은 8.4시간으로, 주로 TV시청(30.5%), 휴식(17.9%),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16.0%)으로 보내고 있음
 - 이와 같이 외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가시설 부족(40.0%), 시간부족(27.7%), 경제적 부담(15.4%), 정보부족(9.2%)을 선택
 -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관광(27.1%), 문화예술관람(22.2%), 취미 및 자기개발 활동(13.4%) 등 선택. 실외활동 니즈가 존재

구분		주말/휴일 여가활동_1순위											
		TV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개 발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무응답
전 체	351	30.5%	8.8%	1.4%	1.7%	5.4%	7.7%	16.0%	4.0%	17.9%	2.3%	4.0%	0.3%

● 여가활동을 위한 청양군 시설 이용촉진 프로그램 필요

- 청년들은 여가활동을 위해 군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와 같이 청양군 공공시설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청년이 과반이 높음
- ※ 주민자치센터(88.3%), 청양도서관(70.1%), 국민체육센터(수영장)(89.5%), 문화예술회관(71.2%), 청양군시네마(62.7%), 평생학습센터(93.4%), 정산도서관(88.9%)
- 청양군시네마, 청양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높았으며, 청양군시네마의 경우 2018년 2월 개관을 감안할 때, 청년들의 여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도서관의 경우 청양도서관은 5회 이상 이용자가 전체 응답자중 10%에 달할 정도로 높으나, 이용 만족도의 경우 다소 낮은 편(3.2점). 만족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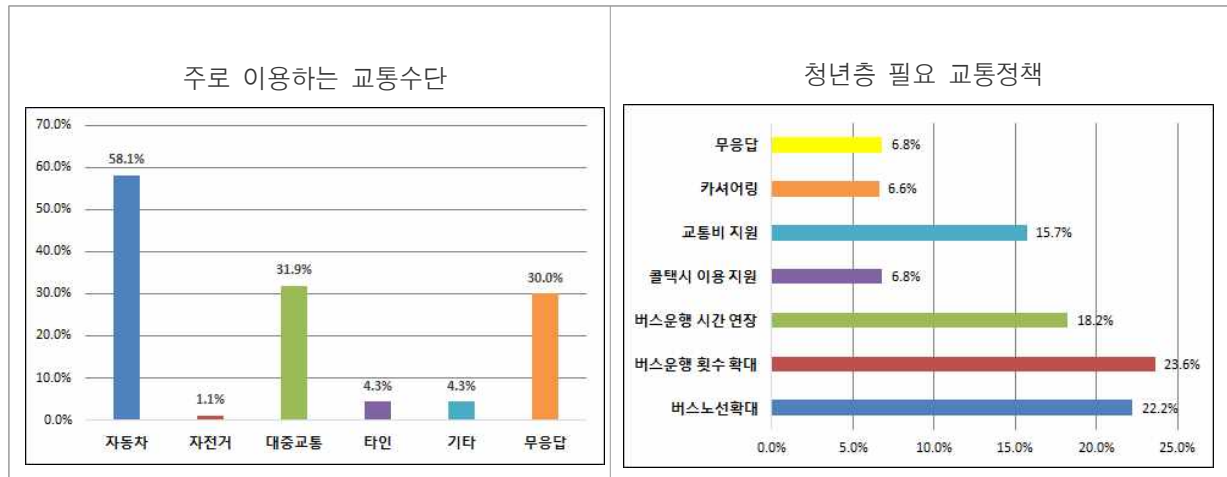
● 청양 청년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 공간부족, 교통 불편으로 나타남

- 평소에 교류는 학교동창(64.4%), 고향친구(47.6%), 직장동료(37.3%)순이었음
- 정기적 참석모임이 없는 경우가 49.9%. 교류활동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교류시간(34.8%), 교통불편(31.1%), 공간부족(20.2%) 및 시설불편(14.8%)을 꼽았음

4. 교통 및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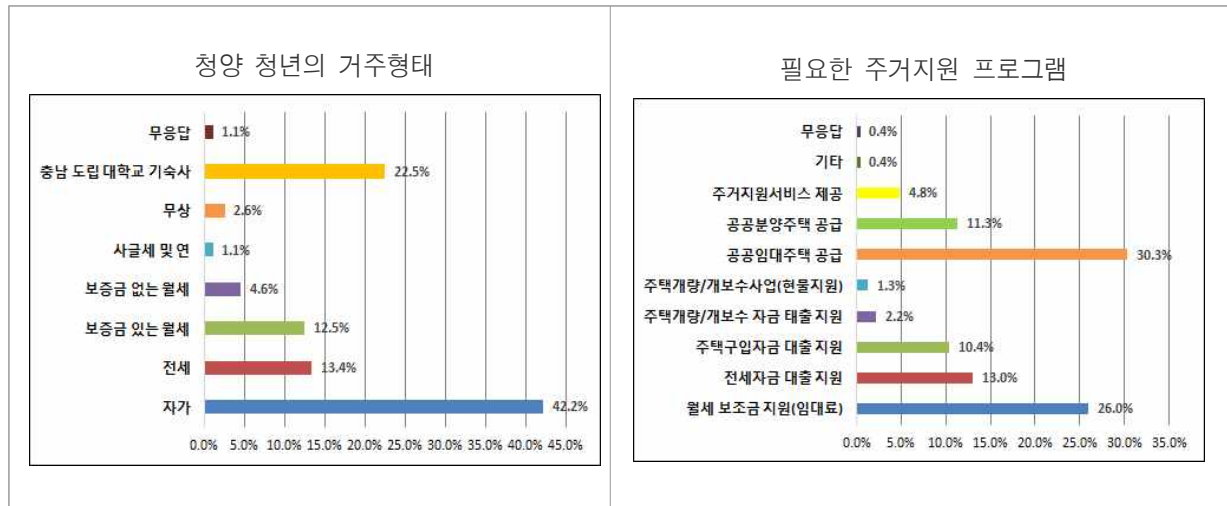
● 주요한 교통수단은 자가용(60%)이지만, 적극적인 공공교통 활성화가 필요

- 청양의 청년의 60%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자동차임
- 그러나 40%의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청년들은 대중교통(31.9%)을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 노선확대, 횡수 및 시간연장에 대한 욕구가 존재함
- 앞서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교통불편(31.1%)을 들고 있는데, 교통정책 활성화는 청년의 교류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관람 및 쇼핑 등은 주로 대전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장 등은 청양읍(63.2%)에 위치하나, 쇼핑할 때는 대전시(30.5%), 천안시(12.5%)에서, 문화예술 관람 등은 대전시(27.1%), 서울(12.3%) 등으로 주로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단, 친구 만날 때는 대전시(21.9%)와 청양읍(21.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음
 - 쇼핑, 문화·예술 관람을 위한 시설확충 또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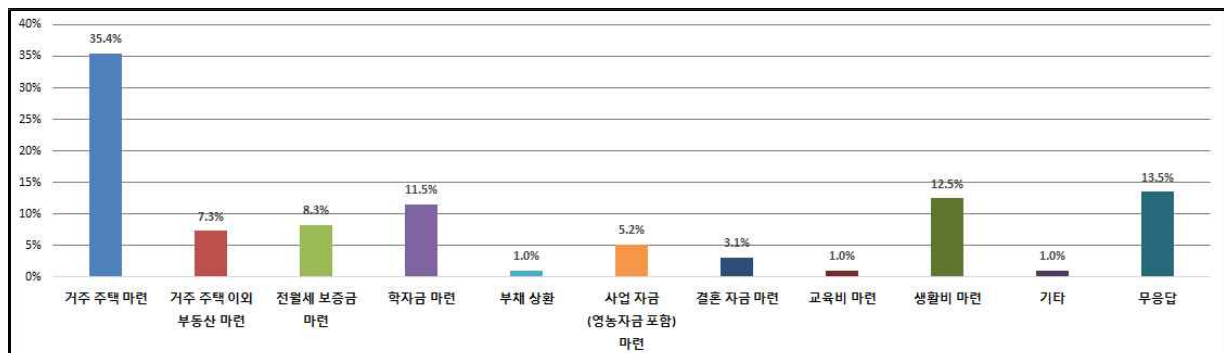
- 청양의 청년들은 일반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하다고 생각함
 - 주거형태는 단독주택(30.5%), 아파트(25.9%), 기숙사(21.7%), 다세대주택(원룸포함)(19.9%) 순이며, 자가(42.2%), 기숙사(22.5%), 월세(18.2%), 전세(13.4%)로 살고 있음
 - 66%의 청년이 주거지원의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분양, 임대) 공급이 1순위이며, 월세보조, 전세자금대출 순이었음



5. 소득과 부채

- 청양 청년의 10명중 3명은 부채가 있으며, 주택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음
 - 부채가 있는 청년은(27.4%)로, 평균 4,665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음. 부채를 지게 된 주요한 이유는 주택마련 등 부동산의 이유로 42.7%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12.5%, 학자금 11.5% 등 순
 - 부동산 대출일 경우, 월 주택대출 원금 및 이자로 약 1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음
 - 부채의 61.5% 제1금융권의 부채이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금융정책은 ①저소득청년 대상의 저축상품, ②금융설계 교육 또는 컨설팅, ③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부채를 지게 된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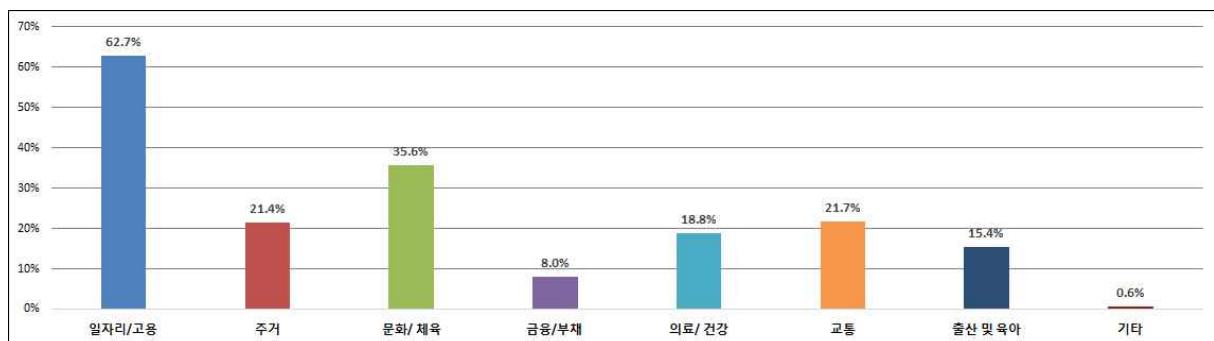


6.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 청양의 청년들은 청양군이 청년 일자리 확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

-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일자리/고용(62.7%)를 꼽았으며, 문화체육(35.6%), 교통(21.7%), 주거(21.4%), 출산 및 육아(15.4%) 순의 필요를 나타냈음
- 그러나 청양의 청년들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관련 기관과 사업방문은 저조함. 일자리정보센터(85.2%), 일자리박람회(88.9%), 청년창업농 지원사업(93.2%), 청양사랑형내 일채움공제(93.2%), 청년일자리사업(84.3%) 등 참여하거나 방문한 경험이 없음
- 이는 현재 추진 중의 사업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나, 청년들에게 정보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필요하며,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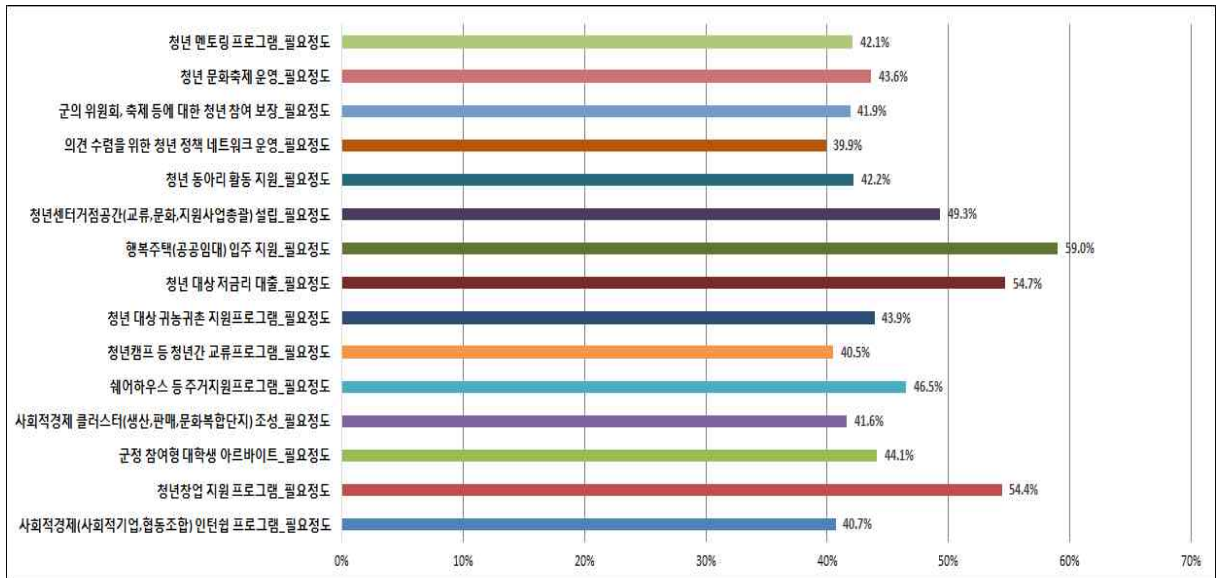
청년정책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 청양의 청년들은 정책수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선호하나, 오프라인 참가도 가능

- 청양군 청년정책 수립 참여방식으로, 이메일수신(21.9%), SNS로 의견개진(18.8%)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선호하나, 공청회참가 및 수립TF 참여(13.7%) 등 오프라인의 참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설문에 제시된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청양 청년의 10명중 4명이 필요를 나타냈으나, 그중 청년대상 사업으로 ①행복주택(공공임대)입주지원(59.0%), ②청년대상 저금리 대출(54.7%), ③ 청년창업지원(54.4%) 등의 순으로 필요를 나타냈으며, 청년네트워크(39.9%), 청년캠프(40.5%)등 교류활성화 대해서는 높지 않았음
- 이는 현재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판단. 단 후술 질문에서 청년간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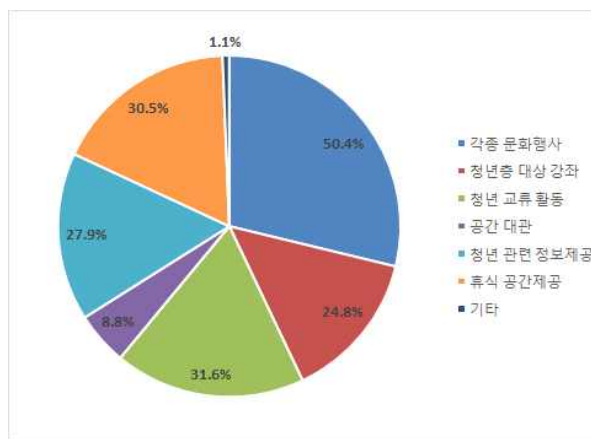
청년정책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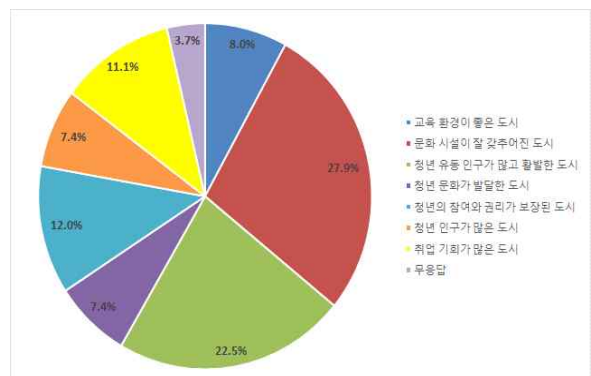
● 청양의 청년들은 청양군을 활발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문화도시 청양’을 꿈꾸고 있음

- 청년대상 사업으로, 각종 문화행사(50.4%) 개최를 가장 높게 꼽고 있으며, 청년간 교류활동 사업은 두번째(31.6%)로 높게 나왔음
- 청년을 위한 거점공간은 2.9개 필요하며, 희망지역은 청양읍(93.7%)과 정산면(43.3%)
- 청년이 살기 좋은 청양은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청년인구가 많고 활발하며, 청년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된 도시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청년사업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03 정책동향 및 사례분석

1. 관련 법률과 제도

- 청년정책은 기능중심의 정책이 아닌, 대상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적인 시각이 필요
 - 현재까지 청년을 법률명에 명시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며, 고용문제만을 다루었다는 한계 존재
 - 대상중심의 정책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특정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청년을 성인기 또는 청소년의 일부로 판단(김기현, 2017)
 - 그러나 청년실업이 9.9%(전체실업률 대비 2.7배), 주거, 학자금 대출, 결혼 및 출산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필요인식 확산
 - 그럼에도 청년정책의 몇 가지 쟁점이 존재. ①누가 청년인가(하한과 상한연령 결정), ②누가 할 것인가?(전담부처), ③ 무엇을 할 것인가?(정책사업) 등
- 현재 추진 중인 청년기본법의 내용(청년연령과 전담부처 결정)²⁾
 -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청년기본법 단일안 합의(5.24)하였음
 - 기본법의 개요 ①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규정 및 청년정책 수립의 근거법, ② 청년범위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③ 관할: 국무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정, ④ 주요내용: 청년친화도시 조성,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향상, 주거 및 창업지원 등 청년시책 시행 권고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는 부처장관 들 포함. 정부와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의무설치,

2) 한국경제 기사, ‘여야, 2030 지원하는 ‘청년기본법‘ 합의’(5.24) 참고

청년정책 추진시 자문심의과정 청년참여 의무화, 청년단체활동 지원금 제공

● 부처별 2018년 청년지원 사업 현황(정책사업)³⁾

1) 고용노동부

추진목표: 청년일자리정책 총괄 및 관리조정(15개부처, 60개사업, 3조126억원)

추진사업: ① 청년일자리창출지원(신규채용,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등)

② 청년일자리 여건개선

③ 청년 구직역량 강화·채용환경 개선(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진로지도 인프라강화 등)

④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현장밀착형 정책홍보 추진)

2) 교육부

추진목표: 대학생 창업지원강화 및 학비·주거 부담경감 목표

추진사업: ① 대학발 실전창업 붐 조성(창업인프라 강화 등)

②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등록금 등)

③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기숙사확충 등)

3) 복지부

추진목표: 청년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경로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추진사업: ① 청년층 건강지원 강화(관리사각지대)

② 취약계층 청년지원강화(일자리 및 인센티브확충)

③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자립지원강화(조기자립 경제적지원)

④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여건개선(종사자 처우개선)

4) 여성가족부

추진목표: 청년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자리창출, 청소년근로 권익보호 지원, NEET 예방

추진사업: ① 2030 청년여성지원

② 청년여성 경력개발지원(멘토링, 사회적기업지원)

③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현장도우미 운영)

3) 국회 청년미래특위 업무현황 보고자료(2018.1.16.) 참고

④ 내일이룸학교(학교밖 청소년 대상지원)

⑤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원

5) 국토부

추진목표: 주택제공, 청년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강화, 주거정보 제공, 전달체계 강화

추진사업: 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공공주택 총 19만호 공급, 39세이하)

② 청년 주거금융지원 강화(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세자금 등 대출지원)

③ 주거정보 제공강화(myhome.go.kr)

6) 금융위원회

추진목표: 청년,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사업: ① 주택금융 및 소액금융 지원(신DTI적용, 우대금리 등)

② 채무조정 지원(신용회복, 상환유예, 채무조정 등)

③ 취업지원, 금융교육 지원(사전금융교육 의무화 등)

2. 사례분석

1) 국내사례

●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0 서울형 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

- 개요: 졸업유예, NEET⁴⁾족, 초단기(불안정)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밖 청년’, 즉 이행기에 놓인 청년(502천명)에 대한 정책공백을 메우는 사회안전망 구축
- 기간/구성: 2016년부터 5년간/20개사업(핵심 5개, 일반사업 15개) 추진
- 사업은 ①활동(설자리), ②노동(일자리), ③주거(살자리), ④공간(놀자리)의 4개분야, 20개 정책으로 추진되며, 5년간 7,136억원의 예산 투입예정
- 특징: 분절된 사업이 아닌 삶의 영역을 패키지화함으로써, 청년의 기본적 활동 토대 마련

4)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사업내용

청년정책 20 (핵심전략 사업 5개 / 일반사업 15개)			
설자리 4개 사업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활동지원 (신규)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저소득 장학생 지원	일자리 9개 사업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정망 구축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청년창업 지원) 서울시립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근로빈곤청년 사회보험료 매칭 지원 (신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신진 유망 예술가 지원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추진	살자리 4개 사업 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신규) 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한지형 세차공간, 세차용합형 룸세어링) 자차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신규)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지원	놀자리 3개 사업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청년활력공간 조성·지원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출처: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931427>

●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략사업과 내용

- ① 설자리사업: (청년활동지원)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이 사회참여 활동과 관계망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평균 50만원의 활동보조비용 지원
- ② 일자리사업: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현장에서 일경험을 하도록 추진. 참여기간은 최대 23개월로, 서울시 청년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의 지원 등 후속 창취업 연계 강화
- ③ 살자리사업: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1인 청년주거빈곤층에 공공임대사업 추진(쉐어형 기숙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 희망하우징 등 6개 사업) 및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돕고자 저축금액의 50~100% 매칭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진
- ④ 놀자리사업: (청년활력공간 조성)청년들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역량개발을 위한 청년활동종합공간 ‘청년청(서울혁신파크내 1동)’과 무중력지대 2020년까지 총 50개소 설치

2) 해외사례

●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 개요: 유럽연합의 회원국 청년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편입을 위한 제도로 권고. 유럽 2020전략 목표인, ①2020년까지 20~64세의 노동가능인구의 75% 고용, ②조기학업중단률 10%미만, ③ 2천만명의 빈곤과 사회적 소외로부터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 추진내용: 25세이하 청년이 학교를 떠난 시점 또는 실업상태가 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 교육·훈련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및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노력해야 함
- 특징: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즉각적 개입, 청년층의 이탈방지, 견습(도제)제도 운영, 중간지원기관 역할 및 파트너십 강화
- 유형: A 유형- 중등교육과 훈련이 끝나는 학생들이 직장으로 잘 이행되는 것
B 유형- 니트족들이 다시 취업과 교육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실제 국가마다 다른 기준과 지원제도가 설계되어 있음

- 입법화 유형: ①청년기본법(Youth Act)-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②노동법- 프랑스
③헌법적 조항: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 자격(실업상태 or 니트족), 대상(25세미만 or 30세미만), 기간(4개월 or 3개월) 등 다름
- 정책영역: ①취업교육과 훈련, ②보충교육과 학업중단, ③취업중개서비스, ④직접고용창출, ⑤채용유인책, ⑥창업유인책으로 구성되나, 직접고용창출은 제한적

● 청년보장제도 논의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짐(김종진, 2017)

-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게 유연성을 제공
- 청년보장제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파트너십 기반 총체적인 접근법일 때 효과적
-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장기 이탈했을 때 단순서비스로는 효과를 얻기 어려움
- 제도의 성공은 개입시기의 적절성에 달려있음
- 노동시장여건이 좋지 않을 때 장기실업상태나 비활동경제인구로 남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타깃그룹 선정과 철저한 지원이 필요

3) 충남사례

(1) 충청남도 청년정책

- 목적: 청년을 통해 행복한 충청남도를 비전으로, 참여·공동체·문화·일자리의 영역의 사업 전개
- 추진현황: 청년정책거버넌스 구성(2017.6) 및 운영하여, 공간·주거·부채·지원조직의 키워드로
①청년활동의 거점공간 구축, ②청년주거문제 해결 건의, ③생활금융교육으로 예방시스템 정립, ④ 청년시책 중간지원조직 구성 제안 등 선도사업 추진

● 2018년 충청남도 청년정책은 3대 추진방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

① 정책컨트롤 기능정립

- ‘청년정책추진본부’ 구성운영, 중간지원조직(청년센터)설치, 시군 청년기본조례 제정 추진

② 청년니즈에 맞는 시책개발

- 정책참여 역량강화: 청년혁신놀이터 정책제안 사이트 개설, 거버넌스 정례화 등
- 경제적(일자리 등) 자립지원: 정부 국정기조 연계(기존사업+시도 창의적 선도사업) 추진 등
-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공간 LAB 조성, 청년학교 확대, 임대료대출이자보전, 셰어하우스 조성 등
- 문화복지 지원: 청년공예클러스터 추진(부여),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 청년예술인 육성강화 등

③ 청년정책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홍보 강화

(2) 당진시 ‘당진형 청년정책’

- 목적: 내일이 설레는 청년 당진을 비전으로, 청년이 주축이 된 새로운 도시 트렌드 창조
- 위의 정책비전과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
 - 청년문제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보육, 문화를 아우르는 총체적 정책 추진
 - 수요자 중심의 획기적인 특화시책 발굴 추진(청년 위원회 구성)
 - 사회적경제 연계된 청년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추진전략은 설자리(제도·소통), 일자리(고용·창업), 살자리(주거·보육), 놀자리(문화)로 체계화

● 당진형 청년정책의 4대 전략사업과 내용

① 설자리사업은 청년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청년참여 및 소통장구 마련을 목적함

-2017년 추진사업: 청년기본조례제정(2017.5.30.),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당진청년센터 '나래' 운영, 청년층 주민자치 활성화

-2018년 신규사업: 청년타운 조성(현재 청년센터 연계, 지하1층~지상4층), 청년공간 확대(읍면 마을창고 등 활용), 청년민회 구성(참여예산제, 정책발굴 등), 청년공동체 소셜미션 발굴단

청년센터 '나래' 설치

- 위 치 : 舊 당진시 청사별관 리모델링(2개층, 1,458㎡)
 - 사 업 비 : 750백만원(전액 시비) / 2017. 11. 25. 개관
 - 입주시설 : 청년 커뮤니티 공간 및 일자리 지원시설 조성
- 1층) 커뮤니티 공간: 카페형 커뮤니티홀, 스터디룸, 세미나실
 2층) 일자리 지원시설: 일자리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미취업청년 전용 도서관
- 운영시간 : 월~금 09:00~21:00, 토 09:00~18:00 ※ 청년정책팀 상주 운영
 - 토익스피킹, 한국사능력시험, 면접 클리닉, 직장인 영어회화 등
- 11개 프로그램 운영 9개월간 19,188명(일 평균 82명) 이용

커뮤니티홀



청년도서관



② 일자리사업은 청년대상 특화프로그램으로 취업경쟁력 제고, 청년아이디어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 2017년 추진사업: 지역사회 청년학교 개설운영(온라인 마케팅과정 등 3개 과정 운영), 미취업 청년 전용도서관 운영, 맞춤형 청년인턴제 실시, 청년창업활동가 지원사업 추진(청년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82개 기업과 7개 학과 계약 운영)

- 2018년 신규사업: 맞춤형 청년인턴제(실업청년, 8개월), 내일나래서비스(공유옷장, 나래통장), 지역인재 채용확대(지역인재 우선채용협약기업 확대), 청년생활임금제(당진시생활임금 차액지원), 농업인월급제 확대실시, 청년스마트 창농가 육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청년인턴제 근무예시〉

분 야	근무내용
행정학·평생교육	읍면동 주민자치사업 기획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경제·경영·마케팅	청년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 경영 매니저 등
시각디자인·홍보	SNS콘텐츠 제작 도우미(카드뉴스, 동영상 등)
문화·관광	삼교호관광사업소, 문화재단, 관광통역도우미, 관광지 해설사 등
복지·보육	복지재단,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복지팀(맞춤형복지팀)
상담·노무	통합일자리센터, 노동 상담사무소 등
교육관련	청년센터 강사,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학습 지도사

③ 살자리사업은 일자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돌봄서비스 확대 등 시차원의 지원

- 2017년 추진사업: 취업준비생 주거환경 위기자 발굴지원(밀린월세 지원), 아동돌봄공공서비스 확대(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운영 등), 방과후 마을학교(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 2018년 신규사업: WELCOME 청년쉐어하우스 설치(창업·창농가, 22년 15개 설치), 청년행복 주택(신혼부부, 21년까지 120호 조성), 신혼부부 전세자금 및 이차지원, GO!출산, 건강맘 사업 확대, 맘편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 미취업 청년 무료건강검진, 워킹맘 아이돌봄 확대 등

④ 놀자리사업은 청년공동체 활동을 기반한 청년문화 활성화 및 당진만의 차별화된 축제 개최

- 2017년 추진사업: 지역사회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충남도 공모사업연계), 해나루 달빛 학습촌 운영(청년전용 야간평생학습교육), 당진 청년의 날 및 청년마켓 등 개최
- 2018년 신규사업: 청년의 날 지정운영, 당진청년마켓 운영, 청년특화거리 조성(원도심 빈점포 활용), 청춘 토토즐 운영(영화관 등 이용료특별할인), 나래 멤버십 운영(원도심가게 등 할인혜택 및 대여혜택),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확대, 대학 동아리 연합축제 개최 등

04

청양군 청년정책 방향 제언

1. 청년정책의 정책흐름과 시사점

- 청년정책은 고용(일자리)정책 중심에서 주거, 복지, 공동체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
 -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등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거나,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중심의 정책적 노력이었음
 - 그러나 청년기본법 및 중앙부처, 서울시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청년정책을 고용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삶의 전 부분 주거 및 공간, 복지, 공동체 등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시군단위 지자체 청년정책은 면밀한 정책설계를 통한 패키지형 정책사업 개발이 필요
 - 지자체단위 청년정책의 경우, 삶의 영역의 각 부분, 즉 일자리·주거·공동체활동·공간 등 영역별 개별지원으로는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존재
 - 각 영역이 연계된 패키지형태(예) 돌봄+공동체)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
 -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청년대상 생활조사, 정기적 네트워크(포럼,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견교환), 청년대상 아이디어 발표대회 등 다양한 측면의 근거의 축적과 합리적 활용이 필요함

2.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양청년의 정책수요

- 청양 청년들은 자녀교육·물가수준에 만족하나, 문화·의료부족 및 공공교통 불편을 경험

- 자녀교육 만족도(7.1/10점), 물가(6.5점) 등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낸 반면, 문화 및 체육, 의료 및 건강(5.0)으로 낮게 나타남
- 이러한 불만족은 쇼핑 및 문화·예술관람을 주로 대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문화·의료시설 및 미흡의 문제만이 아닌 접근성의 어려움, 즉 공공교통의 부재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서비스에도 관심을 제고할 필요 존재
- 청양의 청년들은 일자리와 문화시설(행사), 주거 확충에 대한 정책적 필요 실감
 - 청년들이 느끼는 청양군 청년정책 우선순위는 일자리/고용(62.7%), 문화체육(35.6%), 교통(21.7%), 주거(21.4%) 순이었음
 -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이 살기 좋은 청양은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청년인구가 많고 참여가 활발한 도시임

3. 청양군의 청년정책 방향

- 기본방향: ‘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청양 ’
 - 청년들이 청양에서 살 이유와 떠날 이유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일자리임⁵⁾
 - 그러나 청년들이 청양을 애착할 수 있는 문화적·사회적인 삶을 촉진할 수 없다면, 언제라도 청년들은 기회가 되면 쉽게 떠날 수 있음
 - 현재 청양군은 청년들에게 만족할 만한 문화시설(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지역이 가지는 폐쇄성(52%)으로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망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역시 미흡
 - 그러므로 문화·사회적인 삶을 촉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수요에 기반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안

● 3대 추진전략

(1) 청양군 문화역량 개발

5) 청년일자리 정책수요가 높으나, 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항목 없어 구체적인 일자리 전략(방안)을 제시하기에는 근거가 부족. 일자리 전략 등은 추후 추가적인 연구 및 조사(실태조사 등) 추진필요

- 청양군의 문화역량 개발을 위해 문화·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을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목표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
- 단기적 목표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개최는 ① 청년의 날 지정 및 행사추진, ② 공동체기반 문화프로그램 운영, ③ 마르쉐(농부마켓) 및 플리마켓 개최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② 공동체기반 문화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당진시의 '지역사회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및 '해나루 달빛 학습촌'의 사례 참고

당진시 지역사회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활동내용

팀 명	활동내용	활동사진
도담 가구 제작봉사회	원목 책상세트 제작 후 기부 어려운 가정 청소년 대상 가구 제작 기부	
필쿠스틱	전통시장 버스킹 진행(상시) 찾아가는 런치 음악회(시청, 현대제철 등)	
합덕·우강 맘스카페	화장품, 액세서리 등 프리마켓활동 맘스스토리 플리마켓 & 가요제 개최(4회)	
Brewery201 (A·B)팀	당진특산물 활용 무알콜 수제맥주 개발 진달래 꽃, 해나루 쌀 등	
Evolve팀	3D프린터 활용 캐릭터 큐브 개발 및 제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호서대 창의융합아이디어경진대회(최우수상)	

- 중장기적인 목표인 시설확충 및 조성의 경우, 일반적인 문화체육시설이 아닌 지역 랜드마크로서 기능이 가능한 컨테이너 문화공간 조성을 고려할 만 함
- 서울시의 플랫폼 창동 61은 경우, 창동상계지역에 대형컨테이너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음악공간(공연장, 합주실, 스튜디오), 라이프스타일 공간(쿠킹클래스, 패션클래스), 커뮤니티공간, 예술공간(K-pop갤러리, 포트레이트 갤러리 등)으로 구성됨
-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정기적인 음악공연,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가능

플랫폼 창동 61의 모습



출처 : <http://opengov.seoul.go.kr/seoullove/10248226>

(2) 청양군 공공교통 확충

- 청양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청양의 곳곳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노선버스) 확충 및 노선확장을 목표로 추진하며,
-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패턴 파악을 통한 개선과 공유플랫폼을 활용한 공유택시 활용도 고려할 만함. 일본의 교탄고시(京丹後市)의 200엔 버스 등 교통시스템은 참고가능
- 교탄고시의 200엔버스의 경우, 시민들의 버스이용조사를 통해 이용패턴 파악 후, 몇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균일운임 200엔 버스를 운행 중임. 일본의 경우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최대 1,150엔의 운임을 200엔으로 낮추어 성공적으로 운행
- 성공요인은 철저한 수요조사와 시민들의 니즈에 맞춘 버스운행을 만들어 탑승객을 2배이상 늘렸기 때문임. 또한 보완적인 우버택시와 같은 공유택시 플랫폼도 중요한 역할을 함

휴대폰 앱으로 가능한 우버택시 설명(교탄고시 우버택시)



출처 : <http://www.mlit.go.jp/sogoseisaku/soukou/soukou-magazine/1608kyoutango.pdf>

(3) 청양군 청년의 목소리 발신채널 구축

- 청년의 니즈를 청양군정 및 지역사회에 발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며, 채널은 네트워크 등 인적기반 구축, 공간 및 제도정비, 청년정책 입안 등이 단계적으로 발전
- 우선 청년정책네트워크(또는 포럼)과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년들의 필요와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화를 위한 논의 추진
- 이러한 인적기반을 기초로 청년기본조례 제정 및 청양군내 부서 구축, 청년공간 조성 등 제도정비
- 최종적으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의 예산 및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채널 구축

참 고 자 료

- 고용노동부(2018), 청년일자리 업무현황,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2018.1.16.)
- 교육부(2018), 교육부 업무현황보고,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2018.1.16.)
- 국토부(2018), 주요업무현황,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2018.1.16.)
- 금융위원회(2018), 청년 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2018.1.16.)
- 김기현(2017). 청년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 김종진(2017). 해외 청년보장제도와 한국의 청년수당 개선방향,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토론회 자료(2017.2.20)
- 당진시(2018). “청년, 청년을 말하다” 토론회 자료
- 마시밀리아노 마스케리니(2015). 유럽 청년보장: 유럽 청년정책의 새로운 기본틀,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5월호 pp.5~26
- 보건복지부(2018), 보건복지부 청년대책,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2018.1.16.)
- 서울특별시(2016). 2020 서울형 청년보장(Seoul Youth Guarantee)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2016).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여성가족부(2018), 청년여성 및 후기청소년 주요 업무현황 보고,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회의자료(2018.1.16.)
- 충청남도 미래정책과(2018). 2018년 청년정책추진상황
-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사회조사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조사보고서
- 野木秀康(2016),京丹後市のさまざまな公共交通施策について,国土交通省 会議資料 (<http://www.mlit.go.jp/sogoseisaku/soukou/soukou-magazine/1608kyoutango.pdf>)